

광주FC, 잔류의 꿈 '물거품' ... 2부리그로 강등

K리그1 37라운드 성남에 0-1 패 12위 확정 ... 내년에는 K리그2로

광주FC의 잔류 꿈이 물거품 됐다. 37라운드 경기 결과 광주의 12위가 확정되면서 강등이 결정됐다. 광주는 지난 27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2021 K리그1 37라운드 경기에서 0-1 패배를 기록했다.

그리고 광주와 최하위 경쟁을 하던 승점 3점 차 11위 강원FC가 28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 승점 4점 차로 밀어냈다.

38라운드 한 경기만 남으면서 광주의 잔류 경우의 수가 사라졌다.

2019년 K리그2 우승으로 1부리그로 복귀했던 광주는 지난해 창단 후 가장 높은 6위에도 올랐지만 올 시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서 2년 만에 2부리그로 내려가게 됐다.

광주는 운명을 건 성남 원정에서 물리치라는 장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김영광이라는 방패를 뚫지 못하며 베팅 끝으로 밀려났다.

전반 6분 김종우의 패스를 받은 이순민이 매서운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성남 골키퍼 김영광에 막혔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을 엄원상이 제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김영광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성남 안진범의 오버헤드킥에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광주가 거센 공세에 나섰다.

전반 33분 여봉훈의 크로스를 헤이스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시작과 함께 김호영 감독이 조나탄을 투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선 포항전 후반 추가 시간 처음 모습을 비췄던 조나탄은 기대 대로 후반전 킥플레이어로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까지 흔들지는 못했다.

후반 18분 조나탄이 상대 수비진과 몸싸움을 벌이며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32분 원발로 날린 기습 슈팅은 김영광의 호수비에 막혔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길게 올라온 크로스가 조나탄에게 향했지만 아쉽게 발에 빗맞았다.

결국 0-1로 승점을 더하지 못한 광주는 가슴을 졸이며 강원의 경기를 지켜봤다.

강원이 이날 경기 포함 성남과의 최종전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광주가 인천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다이렉트 강등'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1위의 꿈도 깨졌다.

강원이 서울에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광주의 강등이 결정됐다.

강등권에서 경쟁했던 성남(승점 44)과 서울(승점 44)은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1부 잔류를 확정했다.

사연 많았던 광주의 2021시즌이었다.

광주의 승격과 첫 파이널A를 지휘했던 박진섭 감독이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서울로 떠났고, 광주를 대표하던 외국인 선수 펠리페도 시즌 중반 옷을 갈아입었다. 펠리페를 대신해 매트레이드로 영입한 조나탄은 성남전에서 위력적인 모습은 보여줬지만, 부상으로 신음하느라 올 시즌 채 50분도 뛰지 못했다.

광주는 조나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도 시즌 내내 베스트 멤버를 꾸리지 못했다.

가슴을 치는 상황도 많았다.

시즌 초반 펠리페가 상대의 교묘한 반칙에 시달렸지만, 심판들은 눈과 귀를 닫았다.

0-1패배가 기록됐던 4월 24일 대구전에서도 펠리페가 페널티지역에서 흥정운에 걸려 넘어졌지만 페널티킥 선언은 없었다. 이후 심판위원회가 평가 소위원회를 통해 이 장면을 '오심'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미 승점은 사라진 뒤였다.

1-1 무승부로 끝났던 9월 18일 제주전은 선수 교체 횟수 위반으로 0-3 몰수패로 뒤집힌 억울한 일도 있었다. 대기심의 명백한 실수였지만 광주는 눈 뜬 채 승점을 날렸다.

시즌구단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 올 시즌에도 외롭게 승부를 해왔던 광주는 끝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K리그2에서 2022시즌을 맞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년에는 챔스필드서 살겠다”

KIA 투수 유승철 마운드 복귀 준비

야구 열정을 가득 채워온 유승철이 '호랑이 군단'의 비밀 병기로 발돋움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함평과 광주에서 각각 퓨처스 리그와 1군 캠프를 치러왔다. 예정대로 29일 1군 캠프가 종료되고, 퓨처스 캠프도 하루 앞당겨 같은 날 마무리캠프 일정을 끝낸다.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개된 함평 캠프에서 유승철은 좋은 페이스로 눈길을 끌었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5월 팀에 합류한 유승철은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3경기를 소화했다. '공이 살벌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1군 무대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입대 전 부상으로 고생을 했던 만큼, 또 좋은 페이스를 확실한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2022시즌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것이다.

유승철은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 행복했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그는 "1군 올라가는 것은 코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서재용 코치님께서 선발 투수 해보고 싶냐고 하시면서 1-2아닝씩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다"며 "연습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1군 가서 언제 한번 던질지 모르는데 (2군에서) 정해진 날짜에 던지는 게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준비 과정도 내용이 만족스러웠다. 특히 유승철의 강점인 직구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좋았다.

유승철은 "직구는 2018년도 1군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그때는 아픈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좋으니가 가볍게 던져도 스피드가 나온다. 세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구 잡으려고 던져도 140km 중후반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속제는 변화구다. 이번 마무리캠프에서도 유승철은 변화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유승철은 "남들은 잘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을 보완하려고 했다. 주자 있을 때 변화구를 잘 던지는 게 중요하다"며 "슬라이더는 서재용 코치님이 많이 알려주셔서 스피드가 잘 나온다. 제구에 신경 쓰고 있다. 커브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구가 안 돼서 그런지 맞아나갔다. 카운트 잡는 구종으로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 체인지업은 안 좋아서 포크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벽하게 마운드로 복귀하기 위해 기술에 신경 쓴 유승철에게는 '열정'이라는 중요한 자산도 이번 캠프의 성과였다. 입대 전 부상으로 마음과 다른 시간을 보냈던 유승철은 군대에서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심신을 재울 수 있었다.

유승철은 "현역도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야구에 열정이 식어갈 때쯤 군대를 갔는데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웃었다.

또 "사실 군대에서 상병 때까지 운동을 하나도 안 했다. 트레이너님이 운동하지 말라고, 야구 열정이 식었을 때 억지로라도 쉬어주면 생긴다고 조언을 해주셨다"며 "상병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에너지가 넘쳤다. 그게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했다.

캠프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어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유승철은 자신감을 가지고 챔피언스필드 재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 '호랑이 게임' 이벤트를 위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던 그는 "많이 있던 곳이라 어색하지는 않았다. 차 내비게이션에 챔피언스필드를 '우리집'이라고 입력해놨다. 내년에는 여기 있겠다. 여기 살겠다"고 웃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재희, FA컵 결승 2차전 앞두고 전남드래곤즈 복귀

전남드래곤즈가 FA컵 2차전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었다. 올 시즌 김전상무의 K리그2 우승을 이끈 공격수 정재희(사진)가 복무를 끝내고 지난 27일 전남으로 복귀했다.

2016년 안양에서 데뷔한 정재희는 2019년 전남으로 이적해 29경기 5득점 10도움을 기록, K리그2 최다 도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활약을 했다.

지난해 초반 입대한 정재희는 올 시즌 김천에서 25경기에 나와 4득점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승격 전면에 섰다.

정재희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한 저돌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플레이 유형을 선보이면서 '특점 고만'에 빠져있는 전남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FA컵 정상을 노리는 전남은 지난 24일 열린 대구FC와의 2021 하나원



행 FA컵 결승 1차전에서 0-1 패를 기록했다.

내달 11일 원정경기로 치러지는 대구와의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 만큼 전남에는 '화력'이 키워진다. K리그2 팀 사상 첫 FA컵 제패를 꿈꾸는 전남에는 정재희의 가세가 반갑다. 정재희도 2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하고 있다.

정재희는 "지난 1년 반 동안 선수들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기분이고 복귀해서 기쁘다. 몸 잘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테니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복귀 소감과 FA컵 결승 2차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페퍼스 선수들이 28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한국도로공사전에서 득점을 올린 후 환호하고 있다. <KOVO제공>

승점 1점 코앞...페퍼스 아쉽게 졌다

AI페퍼스가 귀중한 승점 1점을 코앞에 두고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AI페퍼스는 28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졌다. 세트스코어 1-3(25-21, 15-25, 19-25, 23-25). AI페퍼스는 지난 16일 기업은행전 이후 3경기만에 1세트를 획득했다.

AI페퍼스는 1세트에서 아직 몸이 덜 풀린 도로공사를 상대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 엘리자벳과 최가은이 잇따라 서브에이스를 성공하며 8-6, 리드를 잡았다.

리시브를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다듬은 AI페퍼스는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코트를 5차례 오가는 랠리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는 등 기세가 올랐다. 전세안이 리시브한 볼이 네트 너머로 튀자, 하혜진이 재빨리 다이렉트킥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21-15까지 점수차를 벌린 AI페퍼스는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고, 최가은의 블로킹 득점으로 1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부터 도로공사 공격력이 살아났다. 전세안이 오픈 공격·블로킹으로 4차례 연속 득점을 뽑아내며 AI페퍼스를 압박했다. 4-8로 선두를 내준 AI페퍼스는 좀처럼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1-19까지 끌려갔다. 오픈 공격이 번번이 블로킹에 막

한국도로공사에 1-3 역전패 긴 랠리 끝 3·4세트 내 쥘 내달 1일 흥국생명 원정경기

하고, 3차례 서브 에이스를 내주는 등 고전하면서 15-25로 2세트를 내줬다.

AI페퍼스는 3세트에서 0-3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도로공사가 3차례 서브 범실을 하는 등 흔들렸다. 양 팀은 14-14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점차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한비와 엘리자벳의 공격이 정대영과 이예림의 블로킹 벽에 잇따라 막히면서 힘이 빠졌다. 블로킹으로 5점이나 내준 AI페퍼스는 19-24로 물렸고, 엘리자벳의 백어택이 아웃라인을 넘어가면서 3세트를 끝내야 했다.

4세트에서도 AI페퍼스는 지지 않았다. 문슬기와 이한비, 이현이 몸을 던지는 디그로 도로공사의 공격을 틀어막으면서 랠리가 펼쳐졌다. 8-10 상황에서는 12차례나 오가는 긴 랠리 끝에 이한비가 오픈 공격을 성공하는 등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23-23까지 승부의 추가 기술이 없으면서 긴장감 속에 접전이 펼쳐졌다. 전세안이 리시브한 볼을 이윤정이 공장 밀어 넘기면서 도로공사가 매치

포인트를 가져갔다. 이어 켈시의 오픈 공격이 문슬기의 팔에 아슬아슬하게 빗맞으면서 23-25로 아쉽게 4세트를 내줬다.

부족한 공격 자원이 여전히 뼈아팠다. 이날 엘리자벳은 27득점, 이한비와 박경현, 하혜진이 각각 11·10·9득점을 올리며 선전했다. 최가은과 박연화는 각각 2득점, 1득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반면 도로공사는 켈시(28득점) 외에도 전세안(12득점), 배유나(11득점), 이예림(9득점), 정대영(8득점), 박정아, 이윤정(이상 6득점) 등이 고르게 점수를 올렸다.

블로킹 벽을 뚫는 것도 속제로 남았다. AI페퍼스는 도로공사에게 12번이나 블로킹 득점을 내주면서 힘든 경기를 풀어나갔다. 특히 배유나는 블로킹만으로 5득점이나 올리면서 AI페퍼스를 압박했다.

다만 범실이 크게 줄어든 점은 고무적이었다. AI페퍼스는 이날 14개의 범실만을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21개 범실, 그 중에서도 12개 서브 범실을 저지하며 제 살을 깎았다.

집중력도 좋아졌다. 도로공사가 불안한 리시브·디그를 할 때면 여지없이 네트를 넘어온 볼을 곧장 공격으로 연결, 다이렉트킥을 5차례 성공시키는 등 센스 있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한편 AI페퍼스는 오는 12월 1일 인천삼산월드에서 흥국생명과 원정 경기를 갖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